



가을 위 내려앉은 겨울 올해 첫 눈이 내린 26일 광주시 북구 무등산장 가는 길 주변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단풍잎에 하얀 눈이 내려앉아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흥군 부라부라 '천경자 흔적 찾기'

서문리 생가부지 매입 위해 예산 4000만원 반영 요청 체류 기간·소유 관계·활용 계획 조사 없이 "사고 보자" 추모사업 긍정적...체계적 계획 세워 추진해야

고흥군이 부라부라 지난 8월 세상을 떠난 고흥 출신의 한국화가 천경자 화백의 흔적 찾기에 나섰다. 천 화백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생가터를 매입해 고흥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전 조사와 검증이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큰 틀에서 천 화백 기념사업의 밑그림을 그려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천 화백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10번지(옥상길 9-1) 생가터(178㎡) 매입을 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생가터 매입과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4000여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군은 천 화백이 고흥군 점암면 성거리 성주마을 760번지에서 태어나 서문리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군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워 생가터 매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사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군은 생가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역 원로 몇몇의 조언에만 의존할 뿐 토지 대장 등을 통해 명확한 소유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천 화백이 서문리 10번지에서 언제부터 살았으며 언제 떠났는지, 또 남긴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문리 10번지에서 천 화백이 살았던 당시의 흔적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은 1975년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바뀐 뒤 1976년 새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천 화백이 저서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에서 "우리 집은 서문 안 꽤 높은 곳에 있고...뚝이 넓은 초가집이었다"라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재는 목조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진 집 두 채가 들어서 있다. 생가터를 매입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가터는 20년째 미등기 건물로,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시민단체, 정부 규탄 공동행동 '민주주의광주행동' 발족 국정화 등 시국선언문 발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부를 규탄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민주주의광주행동 준비위원회는 26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민주주의광주행동 발족식과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농민 백남기씨 사건' 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광주행동은 광주시민단체협의

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광주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다. 노동과 농민, 서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뜻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주의광주행동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1월 14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직사살수에 무참히 무너졌다"며 "농민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유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고 국가폭력은 구조적이고 계획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씨의 패유를 국민과 함께 기원하고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강신명 경찰청장도 공백하게 변명하지 늘어놓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8 해질 18:52
해짐 17:21 달짐 08:12

쌀쌀한 날씨
가끔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다.

광주	눈은 뒤김 1/6	보성	눈은 뒤김 -1/6
목포	눈은 뒤김 1/7	순천	눈은 뒤김 1/8
여수	구름 많음 1/7	영광	눈은 뒤김 0/6
나주	눈은 뒤김 -1/7	진도	눈은 뒤김 1/7
완도	구름 많음 2/7	전주	눈은 뒤김 -2/4
구례	눈은 뒤김 -1/6	군산	눈은 뒤김 0/4
강진	눈은 뒤김 1/7	남원	눈은 뒤김 -2/4
해남	눈은 뒤김 1/7	축산도	눈은 뒤김 3/7
장성	눈은 뒤김 -1/5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0~2.5	
	면바다	북서~북 3.0~5.0	북서~북 2.0~3.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3.0~4.0	북서~북 2.0~3.0	
면바다(서)	북서~북 3.0~5.0	북서~북 2.0~3.0		

목포	밀물	썰물
	02:35	07:52
여수	15:17	20:28
	09:58	03:24
	22:06	15:59

28(토)	29(일)	30(월)	12/1(화)	2(수)	3(목)	4(금)
3/9	3/10	3/10	2/11	2/10	2/8	2/8

광주·전남 첫 눈... 교통사고도 잇따라 여수서 탱크로리 전도·무진대로 7중 추돌

26일 광주·전남지역에 첫 눈이 내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주·전남지역 적설량은 화순 2cm, 곡성 0.5cm로, 대부분 지역에서는 눈이 녹았다. 첫 눈과 함께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광주와 영광, 장성, 담양 등 전남 11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27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 3~8cm, 전남서부남해안은 1~3cm다. 담양, 구례, 곡성 등은 27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눈과 함께 광주·전남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7분께 여수시 울촌면 한 교차로에서 전모(34)씨가 운전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역회관 인근 무진대로 편도 7차선 도로에서 정모(37)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연이어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정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광주시청 방면 도로의 교통 흐름이 40여분간 정체됐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천동 48층 주상복합건물 조건부 승인

광주시 건축계획심의위는 26일 광천동 48층 주상복합건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26일 건축계획 심의 위원회를 열고 (주)광주방송(KBC)이 추진하는 서구 광천동 주상복합건물 건축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 건물은 (주)광주방송이 광천동 종합 버스터미널 인근에 지하 4층, 지상 48층 규모로 짓는 새 사옥이다. 건축 계획 상 높이만 153.8m로 호남에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ww.7ryang.com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강진칠량봉황옹기

우리고장의 자랑!!

칠량봉황옹기는 소박하지만 풍만한 선!
자연과 같은 따뜻한 색깔!
간결하면서 세련된 옹기입니다

남도의 읍자락 강진에서 옹기를 빚는 정윤석씨 정명(47) 부자

A 2말 40kg 40L B 1말 20kg 20L C 1.5말 15kg 15L D 3말 60kg 60L E 2말 40kg 40L F 1말 20kg 20L G 0.5말 10kg 10L

강진칠량봉황옹기 주문문의 061-433-4943, 010-8836-2665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17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